

[어휘 능력]

1. 문장을 바르게 띄어 읽지 않은 것은?
- ① 마녀 아줌마가 / 침을 튀기며 / 신나게 말했어요.
  - ② 유리 진열장 안에는 / 마카롱이 하나도 / 없었어요.
  - ③ 이수빈은 / 내가 아닌 김은서에게 / 고맙다고 했어요.
  - ④ 마지막 마카롱은 / 배신자 김은서한테 / 꼭 써야겠어요.
  - ⑤ 손에 들려 있던 휴대폰이 / 바닥으로 / ‘툭’ 떨어졌지요.

[비판적 이해 능력]

2.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?

“미안. 내 꿈은 다 이루고 나면 말해 줄게. 그래도 특별히 너에게만은 귀땀해 줄게. 내 꿈은 바로바로,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하는 거야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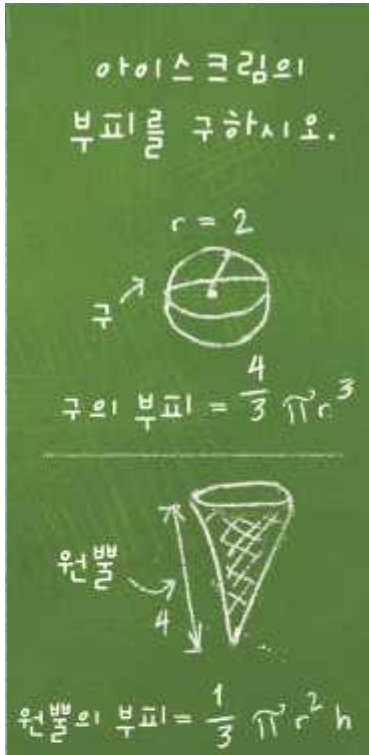
- ① 주말마다 가족과 동네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어린이
- ② 거리 공연을 하며 모은 돈을 해마다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가수
- ③ 빵을 구워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나눠 드리는 빵집 아주머니
- ④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하여 교장 선생님께 표창장을 받은 고등학생
- ⑤ 한 달에 한 번 섬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로 의료 봉사를 떠나는 의사

[사실적 이해 능력]

3. 우주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- ① 소련과 우주 개발 경쟁을 하던 미국이 먼저 우주로 우주선을 보내는 데 성공했다.
  - ② 이후에 미국은 우주 연구 기관을 새로운 우주 기관인 미국 항공 우주국으로 합쳤다.
  - ③ 존 글렌이 탄 우주선이 지구를 세 번 돌고 무사히 돌아왔다.
  - ④ 1969년에는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을 걸었다.
  - ⑤ 1970년에는 아폴로 13호가 세 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달로 날아갔다.

4. [가]와 [나]를 읽고 수학에 대해 생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[가]



- 《캐서린은 어떻게 아폴로 13호를 구했을까?》 -

[나]

☐ 원숭이에게 준 사과는 모두 몇 개인지 덧셈식으로 알아봅시다.

- 원숭이들에게 사과를 아침에 29개, 점심에 13개 주었습니다.  
원숭이들에게 준 사과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면 될까요?

29에 10을 먼저 더하고  
3을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.

29를 30으로 생각하여 더하고  
1을 빼는 방법이 있어요.

☐ 보트 1대에 어린이가 7명씩 타고 있습니다. 어린이의 수를 곱셈식으로 알아봅시다.

- 보트 2대에 타고 있는 어린이는 몇 명인가요?
- 보트 3대에 타고 있는 어린이는 몇 명인가요?

$$7 \times \boxed{2} = \boxed{14}$$

$$7 \times \boxed{3} = \boxed{21}$$

- 《수학 2》 -

- ① 수학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.
- ② 수학이 있어서 부피, 속도, 시간 등을 알 수 있다.
- ③ 수학은 우리 생활 속에도, 우주 개발에도 필요한 학문이다.
- ④ 어려운 수학을 하려면 덧셈, 곱셈 등 기초적인 계산력이 필요하다.
- ⑤ 수학은 답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.

[추론적 이해 능력]

5. 진하가 아래처럼 변화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?



새로운 학교에 처음 가는 날이에요.  
현관을 나서기 전 크게 한번 숨을 쉬어 보았어요.



이제는 동네가 낯설지가 않아요.  
불빛 속에서 우주네 집도, 옥탑방도,  
삼일 떡집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.

- ①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알아보았기 때문에
- ② 새로운 동네지만 골목까지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
- ③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 주었기 때문에
- ④ 우리 집만 특별한 가족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
- 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